



강북구 사암연합회는 1월 10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왼쪽부터) 박경수 강북구청장, 사암연합회 회장 수암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너와 나 함께 부처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가리”



강북구 사암연합회 성도재일법회 현장

“그대 앞에 있는 내가 때론 작게 느껴지더라도 세상에선 누구 사랑 하냐고 물으면 그대라고 말할 나 예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 가슴 아픈 날이 많았는데 아무리 힘든 날이 와도 난 네 손을 놓지 않겠다.” 애정표현이 이보다 더 뜨거운 수 있을까.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월 10일 서울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688석이나 되는 대강당 좌석은 만원이었다. 공연을 보러온 서서 봐야 함에도 관객들의 눈은 무대로 집중됐다.

불자 가수 김중환의 열정에 관객이 빠져들었다. “제 노래 ‘사랑이여 영원히’라는 곡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 중 2인칭인 ‘그대’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릅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루고자하는 간절함이 묻어있었다. 강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암, 회계사 주지)는 특별한 성도재일 법회를 마련했다. 강북 사람들은 성도재일(음력 12.8)을 맞아 문화공연 및 자비나눔으로 성도재일을 축하했다. 그 의미를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행사는 가수 김중환 씨의 공연에 앞서 서울 관무용단과 합창단의 공연 모습. 강북구 사암연합회는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월 10일 철야정진, 집승수행 등 수행의 문화공연으로 성도재일의 뜻을 보다 많은 대중과 함께 새겼다.

도선사, 회계사, 본원정사 합창단 공연, 불자 가수 고경희 포교사, 문명하 국제포교사, 관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 내용은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와 춤이었다. 여느 법회보다 참가자들의 호응은 높았다. 성도재일의 의미를 전하기에 효과적인 행사였다.

사암연합회는 문화공연에 이어 성도재일 법회, 자비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수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날보다 더 뜻 깊게 보내야 하는 날”이라며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원정사 원성 스님은 “성불은 내 마음을 깨치는 것과 함께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비롯된다. 나눔은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법문에서 “예불문에서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라고 하는 것이 곧

나와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 뜻이다”며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성도재일을 맞아 각 가정과 사찰에서 석가모니 정근을 하며 불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는 문화행사에 비해 짧게 마무리됐다. 이날 밤 각 사찰에서는 철야정진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안배한 탓이었다.

부처님 깨달음 이룬 뜻 함께 나누려 소외계층 200가정에 쌀과 현금 등 지원

이러 소외계층을 위해 200가정에 각 쌀 20kg과 현금 5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도선사, 회계사, 삼성암, 보광사, 본원정사, 송주사, 서원사, 경천사, 보현사, 미아사, 강북구청불회 정토회, 향운사 등 강북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사찰이 동참했다. 행사에

는 수암 스님, 혜자 스님, 도갑 스님, 본원정사 원성 스님, 송주사 은우 스님, 경천사 혜오 스님, 미아사 일주 스님, 향운사 명조·지성 스님, 보현사에 묘안 스님, 몽골법당 바트보양 스님, 다시가 스님, 박경수 강북 구청장, 김정중 서울시의원, 이백균 강북구의원 등 7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올해 성도재일 각 사찰에서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11일 오전 9시 타종과 함께 관련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정부와 개신교계의 불교평화를 주제로 한 동영상 상영했다. 조계종 산하 전국 3000여 본말사에서 정부 여당을 규탄 동시법회가 봉행됐다.

회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지금을 ‘하수 상한’ 시대라며 안타까워했다. 문화공연으로 펼쳐던 연합법회와는 달리 엄중했다. 수암 스님은 “개신교의 불교 평화 동영상 보고 불자들이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불교 4대 명절?

부처님오신날(음력 4.8), 출가절(음력 2.8), 열반절(음력 2.15)과 함께 성도절(음력 12.8)은 불교 4대 기념일이다.

성도절에는 전국 사찰에서 철야정진 등으로 성도의 뜻을 기념하고, 고타마 신타라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뜻을 되새기며 용맹정진한다.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고 고행만이 수행의 바른 길 아님을 알아 용맹정진을 한지 7일 만에 새벽의 새벽을 보는 순간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바른 도를 이뤘다는 뜻의 성도재일에는 중생들도 부처님처럼 열반을 얻어 일체대중을 교화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의미깊은 날이다.

출가절에는 출가의 참뜻을 되새기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참회 의식을 넣어 108참회를 한다. ‘발심의 날’로 정하고 오후불식을 하는 불자도 있다. 출가절에 불자들은 부처님을 본받아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열반절은 부처님의 열반을 기념하기 위해 열반재를 연다. 40여 년간 중생교화를 하다가 80세에 해탈한다. 부처님 열반에 대한 설 중 우리나라는 <대반열반경>의 2월 15일 설을 쓴다. <대당서역기>는 열반일을 기념해 부처님의 열반상전에 무차대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탄신일로 기원은 <불소행찬(佛所行讚)>에는 4월 8일로 돼 있고, <유행경(遊行經)>에는 2월 8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을 채택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한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한부밀납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습니다.
-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한부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행화 등에 집먼저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궁예양초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7.0 x 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5.9 x 18cm	③ 약복 1호 그림 양초 5.9 5.9 x 18cm
④ 약복 아랑 연꽃 양초 7.0 7.0 x 33cm	⑤ 밀납 PC접 초 5.5 5.5 x 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⑥ 한부 금강경 세트 5.9 5.9 x 18cm

한부밀납 양초

① 밀납초 90cm x 90cm	② 밀납초 연봉 완가동 7.0 7.0 x 34cm	③ 밀납초 돈타래 5.6 5.6 x 27cm
④ 밀납초 3호 4.7 4.7 x 25cm	⑤ 밀납초 1호 5.9 5.9 x 18cm	⑥ 밀납초 2호 4.7 4.7 x 14cm
⑦ 밀납초 3호 4.7 4.7 x 13cm	⑧ 밀납초 4호 4.7 4.7 x 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4.7 x 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4.7 x 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5.9 x 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5.9 x 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반야심경 연화, 화엄)	⑮ 밀납초 연봉 전사(반야심경 연화, 금강경)

우창산업 SHC 삼한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